

한국어와 카자흐어에서의 친족 호칭어 비교

잔비르바예바 아이게림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4 학년

지도교수: 김영경

Название статьи: Сравнение родственных обращений корейского и казахского языков

Автор: Жанбырбаева А.К., Казах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 мировых языков имени Абылай хана (4 курс),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Резюме: Данная статья посвящена формам вежливого обращения в корейском и казахском языках. В статье рассмотрены следующие подтемы:

- 1) Виды форм вежливого обращ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 2) Формы вежливого обращ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и казахского языков;

Формы вежливого обращения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речевого этикета. Общественная значимость подобных обращений общеизвестна, поэтому мы уделяем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форме вежливого обращения. Формы вежливого общения являются свидетельством не только культуры поведения, но и воспитания языкового сознания. Формулы обращения связаны с характером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людьми, определением взаимного положения говорящих – полового, возрастн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Обращение, как специфическое контактоуставливающее средство,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одну из самых употребительных речевых единиц в корейском и казахском языках. «Обращение – один из важнейших и необходимых компонентов речевого этикета. Обращение используется на любом этапе общения, на всем его протяжении, служит его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казахский язык, родственная обращения

주제어: 한국어, 카자흐어, 친족 호칭어

1. 머리말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을 지칭어라 하고,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을 호칭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는 따로 쓰이기도 하고 겹쳐서 쓰이기도 하며, 칭호만 있고 호칭으로는 쓰이지 않는 것도 있다. 한국어의 호칭어와 지칭어는 대체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는 말로서 체계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대화의 상대에 따라 말을 가려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호칭어와 지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인간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게 해 주는 한 방법이 되며, 또한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호칭어는 웬만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다양하고 복잡하다. 뿐만 아니라 모어 화자도 실제 대화 상황에서 어떤 호칭어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한국어의 호칭어의 사용은 까다로운 편이다. 호칭어가 친근감의 정도와 심리적 거리감을 반영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역할을 하니까 호칭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화자가 대화 상대방이나 지칭되는 대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호칭어를 잘못 선택했을 경우 상대방이 이를 쉽게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어의 호칭어에 비해 카자흐어의 호칭어는 간단하고 아주 쉽게 외울 수 있다. 카자흐어에서는 “이름 결합형 호칭”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카자흐어의 이름 결합형 호칭은 주로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쓰고, 또래 사람들과 친구 사이에도 많이 쓰인다.

본문에서는 한국어의 친족 호칭어 유형을 카자흐어와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어 호칭어의 유형

한국어는 다른 언어들과 달리, 호칭어의 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호칭어를 여러 가지로 분류한 학자들이 많다. 학자들의 견해를 참조하면, 호칭어는 사회적 관계, 어휘·형태적 특성 그리고 사용 의미적 특성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관계에 따른 호칭어는 친족 호칭어와 비친족 호칭어가 있다. 친족 호칭어는 부부간의 호칭, 부모와 자녀의 호칭,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호칭, 숙질간의 호칭, 할아버지·할머니와 손자의 호칭, 시댁 식구에게 쓰는 호칭, 처가 식구에게 쓰는 호칭 등 7가지로 구분된다. 비친족

호칭어는 직장에서 쓰는 호칭, 학교에서 쓰는 호칭어, 사돈 사이의 호칭, 사회생활에서 쓰는 호칭 등이 있다.

둘째, 어휘·형태적 특성에 따른 호칭어는 감탄사형, 성명, 친족어, 대명사형, 택호형, 외래어형으로 구분된다.

셋째, 사용 의미적 특성에 따른 호칭어는 직접호칭어와 간접호칭어 두 가지가 있다. 직접호칭어는 대화에서 상대방을 직접 부를 때 쓰는 호칭이며, 간접호칭어는 대화에서 화자와 청자가 같이 아는 제 3자의 호칭을 쓰는 것이다.

호칭어의 유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사회적 관계에 따른 호칭어의 유형

호칭어의 유형	대상	예
친족 호칭어	부부간	여보, ○○ 씨...
	부모와 자녀	철수, ○○ 엄마...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언니, 올가, 새언니...
	숙질간	이모, 삼촌, 조카님...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할머니, ○○...
	시댁 식구	어머님, 도련님...
	처가 식구	장인, 장모...
비친족 호칭어	직장에서	사장님, 김 사장...
	학교에서	선생님, 철수...
	사돈 관계	사돈어른...
	사회 생활	아저씨, 아줌마, 언니...

<표 2> 어휘·형태적 특성에 따른 호칭어의 유형

호칭어의 유형	예
감탄사형	여보!, 이봐요!
성명(+접사형, +호격조사형)	철수, 철수 씨, 철수야
신분명형(+접사형)	교수님, 사장님
친족어	아빠, 언니, 아저씨
대명사형	자네, 자기, 너
택호형	수원 택
외래어형	미스터, 미스
일반 명사형(+접미사형)	사장, 사장님...

<표 3> 사용 의미적 특성에 따른 호칭어의 유형

호칭어의 유형	예
직접호칭어	여보!, 김철수 씨
간접호칭어	○○ 아빠, 애 엄마, 철수 할머니

3. 한국어와 카자흐어에서의 친족 호칭어

카자흐어는 지역에 따라 여러 방언이 사용되고 있어서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서쪽 지역에서 사용되는 카자흐어를 중심으로 비교했음을 밝힌다.

3.1. 부부간의 호칭

한국어에서 부부의 호칭어는 단계적으로 신혼 초, 아이가 있는 경우, 장·노년기의 호칭어로 나누어진다. 신혼 초에는 직접호칭어로 서로 “여보”, “○○ 씨”를 표준으로 하지만 “여봐요”도 허용된다. 자녀가 있을 때에는 서로를 “여보”로 부르거나 간접호칭어로 남편을 “○○ 아버지”나 “○○ 아빠”로, 아내를 “○○ 어머니” 또는 “○○ 엄마”로 부른다. 장·노년 때는 남편에 대한 호칭어는 주로 “여보”, “영감”, “○○ 할아버지”, “○○ 아빠”이고 아내에 대한 호칭어는 “여보”, “임자”, “○○ 할머니”, “○○ 엄마”가 된다.

카자흐어에서는 부부간의 호칭어가 단계적으로 잘 구분되지 않는다. 카자흐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부의 호칭어가 “жаным”이지만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부부가 할아버지·할머니가 되면 “жаным”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서로 “шал, шал-ау”(할아버지)와 “кемпір”(할머니)로 호칭하거나 이름을 부른다.¹

<표 4> 부부간의 호칭어

나이	호칭어			
	아내		남편	
	한국어	카자흐어	한국어	카자흐어
신혼 초	여보, ○○ 씨, 여봐요	жаным, 이름	여보, ○○ 씨, 여봐요	жаным, 이름
자녀 있을 때	여보, ○○ 엄마, ○○ 어머니, 임자		여보, ○○ 아버지 (아빠)	
장·노년	여보, ○○ 엄마, ○○ 어머니, ○○ 할머니, 임자	이름, кемпір	여보, 영감(님), ○○ 아버지(님), ○○ 할아버지	이름, шал, шалау

3.2. 부모의 자녀 호칭

한국에서는 아들·딸이 혼인하기 전에는 이름으로 “철수야”처럼 “이름+호격형”을 사용하고 감탄형은 “야야!” 또는 대명사형으로 “너”를 사용

¹ 카자흐어에서 “шал”이라는 말은 할아버지를 뜻하며 “кемпір”은 할머니라는 뜻이다. 이 호칭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안 쓰는 사람들도 있다.

한다. 그러나 혼인한 후에는 자녀의 이름으로 아들을 “○○ 아비(아범)”, 딸을 “○○ 어미(어멈)”으로 부른다.

카자흐어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른다. 자녀들이 결혼하여 가정도 생기고 아이를 낳고 나이가 점점 많아져도 호칭을 바꾸지 않는다.

<표 5> 자녀에 대한 호칭어

호칭어의 분류	호칭어의 유형	한국어	카자흐어
어휘·형태적 호칭어	감탄사형	야, 어이, 어...	이름
	성명 (+접사형, +호격조사)	○○○, ○○야	
	대명사형 (+호격 조사)	너, 애야	
	일반 호칭어	별명, ○○ 아비(아범), ○○ 어미(어멈)	
사용 의미적 호칭어	직접 호칭어	애야, 너	
	간접 호칭어	○○ 아비(아범), ○○ 어미(어멈)	

3.3. 자녀의 부모 호칭

한국어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부르는 말은 일반적으로 “어머니”이다. 어릴 때는 “엄마”라고 부를 수 있지만 크면 대개 “어머니”라고 고쳐 부른다.²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는 말은 “아버지”이다. 어릴 때는 ‘아빠’라고 부른다. 자녀가 생기면 간접호칭어로 “○○ 어머니”, “○○ 아버지”를 사용한다.

카자흐어에서는 아기가 말을 배울 때부터 어른이 되어서까지 어머니의 호칭어는 “анашым / мама”(어머니), 아버지의 호칭어는 “әкешім / папа”(아버지)만 있다.

한국어와 카자흐어에서 자녀가 부모를 부르는 호칭어는 다음 표와 같다.

<표 6> 부모에 대한 호칭어

호칭어의 분류	호칭어의 유형	한국어	카자흐어
어휘·형태적 호칭어	일반 호칭어	엄마, 어머니(님), 아빠, 아버지(님)	анашым, мама
사용 의미적 호칭어	직접 호칭어	엄마, 어머니(님), 아빠, 아버지(님)	әкешім, папа

² 국립국어 연구원·조선일보사(1992), <우리말의 예절>, 국립국어연구원.

3.4.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들에 대한 호칭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남동생이 형을 부를 때 “형”이나 “형님”이라고 한다. 형의 아내에 대한 호칭어는 “형수님”이다. 남동생은 “○○야”, “동생”으로 호칭한다. 동생이 늙어서도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성년이 되어 혼인을 하면 대우를 해주는 것이 전통적인 예의이다. 그리고 남동생의 부인은 “계수씨”, “계수씨”로 호칭한다. 남동생은 누나를 “누나” “누님”으로, 누나의 남편을 “매부”, “매형”, “자형”으로 부른다. 이 호칭들은 지방마다 다를 수도 있다. 여동생을 부르는 말은 “○○야”, “동생”이다. “동생”은 성년이 되어 이름을 부르기가 어려울 경우에 쓰는 호칭이다. 그리고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매부”, “○(성)+서방”이다. 한편 여동생은 오빠를 “오빠” 또는 “오라버니(님)”로 오빠의 아내를 “언니”, “새언니”로 부른다. “새언니”가 자기보다 나이가 적어도 마찬가지로 “언니”라 한다. 남동생을 부르는 말은 “○○(이름)야”, “동생”이며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은 “올케”이다. 가족 중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친언니를 “언니”로 부르고 언니의 남편은 “형부”라고 호칭한다. 여동생을 부를 때 남동생처럼 “○○(이름)야”나 “동생”이라 하고 여동생의 남편은 “○(성) 서방”, “○(성) 서방님”이라 한다.

카자흐어에는 화자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이 형이나 오빠를 “аға”라고 부르고 그의 배우자 배우자를 “женге, женеше”로 호칭한다. 누나나 언니도 마찬가지로 그냥 “апа, әпке”이고 그 배우자는 “жезде”라고 해야 한다. 남동생을 “іні”라고 부르고 그 아내는 “келін”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여동생을 호칭할 때는 화자가 남자일 때는 여동생을 “қарындас”이라고 부르고 화자가 여자이면 “сіңілі”라고 해야 하며 그 배우자를 “күйеубала”라고 한다.

한국어와 카자흐어에서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호칭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7>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어 (화자가 남자인 경우)

지칭어		호칭어	
한국어	카자흐어	한국어	카자흐어
형	аға	형, 형님	이름+аға
형의 아내	женге	형수, 형수님, 아주머님	женеше, 이름+женгей
누나	апа,әпке	누나, 누님	이름+апа/әпше
누나의 남편	жезде	매부, 매형, 자형	이름+жезде
남동생	іні	동생, 아우	이름
여동생	қарындас	이름+동생	
남동생의 아내	келін	계수씨, 계수씨	
여동생의 남편	күйеубала	매부, 성+서방	

처의 오빠	қайныаға	형님 (나이가 많을 경우)	аға, 이름 + еке/әке (Бәке, Асеке)
		처남 (나이가 적을 경우)	
손위 처남댁	жеңге	아주머니(님), ○○어머니	이름+жеңге/апа
처의 남동생	балдыз	처남	이름
손아래 처남댁	келін	처남댁, ○○어머니	
처의 언니	қайынбике	처형	апа,әпке
처언니의 남편	үлкен бажа	형님 (나이가 많을 경우)	이름 + еке/әке
		동서 (나이가 적을 경우)	
처의 여동생	балдыз	처제	이름
처여동생의 남편	бажа	동서, 성+서방	

<표 8>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어 (화자가 여자인 경우)

지칭어		호칭어	
한국어	카자흐어	한국어	카자흐어
오빠	аға	오빠, 오라버니(님)	이름+аға
오빠의 아내	жеңге	(새)언니	жеңеше, 이름+ жеңгей
언니	апа,әпке	언니	이름+апа/әпше
언니의 남편	жезде	형부	이름+жезде
남동생	іні	동생	이름
여동생	сіңілі		
남동생의 아내	келін	올케	이름
여동생의 남편	күйеубала	성+서방(님)	
시숙 (남편의 형)	қайныаға	아주버님, (큰)서방님	аға
시숙의 아내	абысын	형님	апа
시동생 (남편의 동생)	қайны	미혼: 도련님 기혼: 서방님	이름
시동생의 아내	келін	동서, 아우님	
손위 시누이 (남편의 누나)	қайныапа	형님, 큰 누님	апа,әпке
손위 시누이의 남편	жезде	성+서방님, 아주버님	аға
손아래 시누이	қайнысіңілі	아가씨	이름

(남편의여동생)			
손아래 시누이의 남편	күйсубала	성+서방님	

3.5. 숙질 사이의 호칭어

숙질간의 호칭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자녀와 나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한국어와 카자흐어의 숙질 사이의 호칭어를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숙질 사이의 호칭어

분류	대상	한국어	카자흐어	
			지칭어	호칭어
관계적 호칭어	아버지의 형 부부	큰아버지	үлкен әке	이름+аға, үлкен папа
		큰어머니	үлкен шеше	이름+апа/әпше, үлкен мама
	아버지의 남동생 부부	미혼: 삼촌 기혼: 작은아버지	көке	көке, 이름+аға
		작은 어머니	жеңге	이름+жеңеше, 이름+апа/әпше
	아버지의 누이 부부	고모, 아주머니	тәте	тәте, 이름+апа/әпше
		고모부, 아저씨	жезде	이름+жезде
	어머니의 남자 형제 부부	외삼촌	нағашы аға	көке, 이름+аға
		외숙모, 아주머니	жеңге	이름+жеңеше, 이름+апа/әпше
	어머니의 자매 부부	이모	нағашы апа	тәте, 이름+апа/әпше
		이모부	жезде	이름+жезде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숙질의 호칭어는 한국어와 카자흐어 모두 아버지의 남자 형제와 어머니의 남자 형제에 대한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한국어에는 아버지의 남자 형제는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호칭어가 다르지만 어머니의 남자 형제는 그런 구분이 없다. 즉 “외삼촌”과 “이모” 하나로 호칭하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숙질의 지칭이 많이 있지만 호칭이 간단하다. 부모의 형제는 아버지의 형제든 어머니의 형제든 상관없이 똑같은 명칭을 사용한다. 카자흐어는 삼촌, 외삼촌을 구분하지 않고 두루 “көке”라고 한다. 숙모, 고모, 이모도 마찬가지로 “тәте”라고 한다. 카자흐어는 특별한 구분을 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이 “큰삼촌”, “작은삼촌” 등 위계를 구분하는 것과 다르다. 대신에 그 삼촌의 이름을 붙여 “○○ аға/апа”로 불러 그 당사자를 구분한다.

3.6. 할아버지·할머니와 손자 사이

한국어에는 존칭이 있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친손자들이 조부모를 부르는 호칭이다. 손자며느리인 경우에는 물론 “할아버님”과 “할머니님”이라 한다.³ 이 때 1 인칭 대명사 “저”를 쓴다.

카자흐어에서는 친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구별없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각각 “ата”와 “әже”로 호칭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자들을 호칭할 때에는 이름을 사용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손자 사이 호칭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0> 할아버지·할머니와 손자 사이의 호칭어

호칭어의 분류	호칭어의 유형	한국어	카자흐어
관계적, 어휘·형태적 호칭어	친족어 호칭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ата, әже
	대명사형	손자에게: 너	이름
	감탄형	손자에게: 애야, 어이...	
	성명형 (+접사형)	○○야, ○○○, 성+서방	

3.7. 시부모와 장인·장모의 호칭어

a. 시부모의 호칭어

한국어에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이 있듯이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하는 시아버지도 많고 시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생각하는 며느리도 있다. 이러한 마음은 호칭어에도 나타나 시아버지를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남편의 어머니를 “어머니” 또는 “어머님”으로 호칭한다. “님”자를 붙여 부르면 거리감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아버님”은 경칭인 호칭으로 사용했고 지금도 시아버지는 예의를 갖춰 불러야 할 어려운 대상이므로 “아버님”으로 호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자녀가 같이 있을 때는 간접적으로 “○○ 할아버지”, “○○ 할머니”로 부르기도 한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시부모를 부르는 호칭을 친부모 호칭처럼 쓴다.

b. 장인·장모의 호칭어

한국어에서는 사위가 아내의 부모를 부르는 호칭은 아버님이나 장인어른, 어머님이나 장모님이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사위가 아내의 부모님을 부를 때도 친부모 호칭을 쓴다. 한국어에서는 시부모와 장인·장모의 호칭어가 따로 존재하지만 카자흐어에서는 사위와 며느리가 장인·장모와 시부모를 자기 부모처럼 호칭한다.

³ 국립 하노이대. 외국어대학교, 박사과정,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호칭 체계 비교

4. 결론

이상으로 한국어와 카자흐어의 호칭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어의 호칭어는 카자흐어에 비해 세분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는 반면에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상황에서 자유롭게 호칭어를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카자흐어는 한국어만큼 엄격하고 세부적이지는 않더라도 나름의 발전된 친족호칭어를 가지고 있으며, 경우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한국어와 카자흐어의 친족호칭어는 가족중심적인 문화에서부터 발전한 것으로 한 나라의 문화와 깊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국립국어 연구원·조선일보사(1992), <우리말의 예절>, 국립국어 연구원.
2. La Thi Thanh Mai,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호칭체계 비교”, 국립 하노이대·외국어 대학교 박사과정.